가사노동의 기계화 : 도입과정과 배경*

The Mechanization of Housework : Focused on Diffusion Process and Influencing Factors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김 성 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이 기 영

Dept. of Home Management, Sunchon National Univ.
Instructor : Sung Hee, Kim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Ki Young, Lee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범위와 자료
IV. 가정기기의 보급추이
V. 가정기기의 도입 배경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xplore the diffusion process of household capital goods, (2) to examine the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on the diffusion process and to discuss whether the household capital goods would be introduced for the efficiency of housework.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all sorts of literatur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Household capital goods were developed about the time of 1960's and were spreaded in 1980's. In this course such socio-economic factor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industry, the price change of household capital goods and services, the decrease of employed housekeepers and the increase of income level influenced on the diffusion process.

*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t seemed that household capital goods were not introduced only for the efficiency of housework.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국내에서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 대량생산된 각종 가정기기는 1960년대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가정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부의 가사노동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피셔(Fisher, 1972)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산업화와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에 다른 효과를 초래한다. 가사노동의 산업화(die Industrialisierung der privaten Hauswirtschaft), 즉 가족원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위해 시장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가정 밖의 영역으로 이양시킨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기계화(die Technisierung der privaten Hauswirtschaft)는 가사노동의 산업화와는 달리 가계내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자급 정도를 더욱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로 이양되었던 가사노동을 다시 가정내로 귀환시킨다. 가정기기는 시장상품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정내의 생산을 유지·촉진시키는 상반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기기의 도입이 여타의 시장상품과 다른 변화를 가사노동에 초래함에 따라 국외에서는 가정기기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Giedion, 1948; Hartmann, 1974; Cowan, 1983; Day, 1992 등).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가정기기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산업화 이후 도입된 가정기기의 종류 및 변천에 관한 연구로는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한 것(김금숙, 1991)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가정기기가 도입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탐색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가정기기는 단순히 주부의 노동효율 증가를 위해서 도입되는 것으로만 간주될 뿐이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연구과제를 조사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1)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되어 가정에 도입된 가정기기의 종류와 도입 시기를 살펴본다.
2) 가정기기의 도입과 관련된 요인을 사회·경제적 배경과 주부의 노동 효율성 증가 측면에서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정기기의 변천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산업기기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기도 한다(Wilson, 1978; Klemm, 1992). 그러나 국내의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산업관련 기기에 제한되어 있고 가정기기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전병기, 1982).

한편 민속학에서도 박물관적 자료의 발굴과 문화재의 보호 차원에서 가정내의 기구를 조사하기도 한다(문화공보부, 1988;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 등). 그러나 민속학의 연구대상은 전통사회의 유산에 제한되어 있고 새로 도입되거나 사라져가는 현대 가정기기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다.

가정기기의 도입배경에 관해서는 브라이언트(Bryant, 1986)는 시장상품의 가격이 올라간 경우 가계생산의 투입요소는 주부의 시간으로 대체된다고 하여 상품가격이 가정기기 도입의 한 요소라고 보았다. 스롤(Thrall, 1982)은 가정고용인의 감소가 가정기기의 도입을 유도했다고 보았고, 스티글러(Stigler, 1946)는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가정고용인의 감소를 유발했다고 보았다. 랑(Long, 1958)과 박세일(1982)은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정기기의 사용이 여성취업을 유도한다고 본 반면, 김외숙 외(1991)는 여성취업의 증가는 소득증가와 시간제약을 초래하므로

가정기기 도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 맨스필드(Mansfield, 1968)는 산업의 규모와 산업의 시장구조, 기업의 비용 절약 수준이 혁신적인 재화의 보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베블렌(Veblen, 1934)은 기술의 선택은 주부의 가사노동 효율보다 계층과시와 같은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86)는 상품의 소비는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위나 위세와 같은 욕구를 표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가정기기는 주부의 노동 효율만을 위해 도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범위와 자료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가정기기란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 대량생산된 것으로 가계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면서 가족원의 최종소비를 위한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사노동 수행 도구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기기의 보급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및 시설·설비의 광범위한 사용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간접시설의 보급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기기의 보급 추이를 살펴봄에 앞서 이의 사용에 근간이 되는 주요한 사회간접시설로 전기, 가스, 상수도의 보급 추이도 살펴본다.

2. 연구자료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를 전후로 많은 가정기기가 개발되고 생산되었지만 가정기기의 개발, 생산 및 보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많지 않다. 관련 자료는 정부 및 기타 사회문화 단체들의 조사자료와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에서 이용가능한 것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체로 거시적이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들 자료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사주체와 시기에 따라 개념규정과 조사범주,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불일치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가장 근사한 개념과 범주를 선정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바꾸어 활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IV. 가정기기의 보급 추이

1. 사회간접시설의 보급 추이

전기는 1887년 경복궁 내에 전등이 설치되면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기간 동안 일반가정의 전화율(電化率)은 무척 낮아서 1929년에 약 6%, 1942년에 이르러서도 17.5%에 불과했다(한국과학기술원, 1987). 해방후에도 전화율은 북한의 단전과 6.25전쟁으로 인한 시설파괴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60년 전화율은 19.9%, 1961년 전화율은 20.8%였다(한국전력주식회사, 1962). 그러나 1962년부터 전기전원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1965년에는 전등있는 가구가 전국 28%, 시부 67.3%, 군부 12.4%로 증가하였다(통계청e, 1965). 1975년에는 전기시설이 거의 모든 가구에 보급되어서 전국 가구의 90.0%, 시부 가구의 98.5%, 군부 가구의 81.5%가 이를 보유하였다(통계청e, 1975).

가스는 19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가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가스는 주로 등화에 사용되었지만 1935년에는 배관에 의한 취사용 가스도 공급되었다(상공자원부, 1993). 가스사업은 1941년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3년 석유파동이 일면서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가스공급 호수는 1972년 6천6백호에서 1981년 12만6천4백호로 10년 사이에 약 20배 증가하였다(통계청f, 1992). 1980년 이후 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사업 도입으로 확대되었다. 도시가스 보급율은 1986년 12.4%에서 1989년 15.3%, 1990년 16.2%, 1991년 19.0%, 1992년 23.8%로 증가하였다(상공자원부, 1993).

상수도 시설은 1908년에 처음 설치되었다(김의원, 1982). 그러나 우물물의 이용은 1960년에도 수도물

의 이용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80.1%, 시부에서는 55.4%, 군부에서는 90.3%가 우물물을 이용하였다(통계청e, 1960). 게다가 수도의 이용도 개인수도보다 공동수도 이용율이 더 높았다. 시부의 경우 공동수도 이용율은 28.6%이었던데 비해 개인수도 이용율은 13.3%이었다. 상수도의 보급은 196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서 급수도시수는 1961년 64개에서 1970년 117개, 1980년 243개, 1990년 551개로 늘어났다(통계청g, 1991; 통계청f, 1992).

2. 가정기기의 보급추이

식생활과 관련된 가정기기의 보급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취사와 관련된 가정기기인 가스레인지는 1974년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후 보유율이 1991년에 전국 98.5%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자레인지는 1978년 국내에서 개발된 이후 보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저장용 기기인 냉장고는 1965년에 개발된 이후 1993년에는 보유율이 108%에 이르고 있다. 식품분쇄용 기기인 믹서는 개발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1979년에 전기밥통, 전기밥솥, 냉장고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였다.

1988년에 개발된 식기세척기는 보유율은 아직 낮아 1993년에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맞벌이 가족의 증가, 여가욕구의 증대로 보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성사 홍보실, 1992). 식기세척과 관련된 식기건조기는 1990년대 들어 보급되기 시작해서 1993년 30%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의생활 관련 가정기기로서 세탁기는 1969년에 국내에선 냉장고 다음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다〈표 2〉. 세탁기의 보급은 1975년 전국 보급율 1.0%에서 1985년 26.0%로 1985년까지는 비교적 늦은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5년을 전후로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1993년에는 보급율이 91%로 증가하였다.

전기다리미는 가정기기 중 전기제품으로 일찍부터 보급되었던 것 같다. 1947년 경향신문에는 '와이샤쓰 다리는 법-아이롱을 사용하여'라는 기사가 실렸

〈표 1〉 식생활용 가정기기의 보급 추이

(단위 : %)

종류 \ 연도	*1970	*1975	1979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가스레인지**	-	-	-	-	-	-	-	98.5	-
전기밥통	-	-	73	75	85	81	86	66	61
전기밥솥	-	-	53	61	72	69	72	64	48
전기남비	-	-	6	-	14	-	12	10	10
토스트기	-	-	4	-	5	-	5	9	13
전기곤로	-	-	7	-	3	-	3	2	3
전기오븐	-	-	7	-	5	-	6	4	6
전자렌지	-	-	-	-	4	8	15	32	45
전기후라이팬	-	-	26	36	45	49	58	51	54
커피포트	-	-	26	-	51	-	53	47	43
약탕기	-	-	-	-	4	-	17	23	27
냉장고	2.1	6.5	49	68	87	95	103	110	108
믹서	-	-	38	45	56	59	64	65	69
쥬서	-	-	-	1	4	19	26	28	35
식기건조기	-	-	-	-	-	-	7	20	30
식기세척기	-	-	-	-	-	-	-	-	1

자료 : 한국전력공사,가전기기보급율조사연구, 1979, 1986, 1990, 1992, 1994.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70, 1975.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1.

〈표 2〉 의생활용 가정기기의 보급 추이

(단위: %)

종류 \ 연도	*1970	*1975	1979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세탁기	-	1.0	11.0	21.0	39.0	47.0	65.0	86.0	91.0
전기다리미	-	-	84.0	77.0	88.0	88.0	95.0	95.0	98.0
재봉틀 (전기재봉틀)	43.3	-	-	-	-	-	-	(3.0)	(6.7)

자료 : 한국전력공사, 가전기기 보급율 조사연구 1992, 1994.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70, 1975.

다. 전기다리미는 1950년대에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1958년 전력연감(조선전업주식회사)에는 전기다리미 생산업체가 1개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의한 대량생산은 197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K사에서는 1976년에 처음으로 전기다리미를 생산하였다(금성사, 1993). 전기다리미의 보급율은 1979년에 84%로 이 시기의 가정기기 중 가장 높은 보급율을 보였다.

한편 가정기기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봉틀은 일제시대에 처음 수입제품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1] 국내생산은 1965년 무렵에 본격화되었고 이 때부터 재봉틀이 대중화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1995.2.15). 재봉틀 보급율은 1970년에 43.3%였지만 이후에는 보급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85년 서울에서의 재봉틀 보유율은 48.5%로 1970년 시부의 보급율 44.2%와 큰 차이가 없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85). 최근의 재봉틀 보급은 전기재봉틀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급율은 아주 낮아서 1993년에 6.7%였다.

주생활과 관련된 난방기기로 보일러의 보급율은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53.4%였다〈표 3〉. 1961년 아파트가 처음 건설되면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일러는 1990년에는 보급율이 73.8%로 거의 일반화되었다. 보일러 외에 보조 난방기기로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도 그 보유가 계속 증가해왔다.

〈표 3〉 주생활용 가정기기의 보급 추이

(단위 : %)

종류 \ 연도	1979	1983	1985	1987	1989	1990	1991	1993
연탄보일러	-	-	*50.4	-	-	*48.6	-	-
기름보일러	-	-	* 2.7	-	-	*20.0	-	-
가스보일러	-	-	* 0.3	-	-	* 5.2	-	-
전기보일러	-	-	* -	-	-	* 0.3	-	-
전기장판	6.0	9.0	10.0	15.0	22.0	-	36.0	51.0
전기담요	2.0	3.0	5.0	6.0	11.0	-	9.0	18.0
진공청소기	-	-	-	8.0	18.0	-	31.0	47.0

자료 : 한국전력공사, 가전기기 보급율 조사연구, 1992, 1994.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85, 1990.

청소기는 국내에서는 1979년에 비교적 늦게 개발되어 출시되었다. 보급도 늦어서 1987년의 전국 보급율은 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한국형 청소기가 개발되면서 보급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3년 전기청소기의 보급율은 47%로 증가하였다.

V. 가정기기의 도입배경

1. 전자공업의 발달

국내에서 가정기기 보급은 무엇보다도 맨스필드(Mansfield, 1968)의 주장처럼 산업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에서 산업 특히 전자공업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다.

1959년 라디오가 개발된 이후, 1960년 선풍기, 1961년 전화기, 1965년 냉장고, 1966년 흑백 TV, 1968년 에어컨, 1969년 세탁기, 1974년 전자식 가스레인지, 컬러TV, 1978년 전자레인지, 1979년 VCR, VTR, 진공청소기, 1982년 개인용 컴퓨터, 1988년 식기세척기가 개발되었다(한국전자공업진흥회, 1981; 금성사, 1993).

국내의 전자공업 생산은 가전기기를 중심으로 발달해왔고 이에 따라 보급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외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함에 따라(상공자원부, 1993), 가정기기의 개발과 생산이 사용자가 아닌 기업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노동절약특성이 큰 가정기기의 개발 순위에서 잘 나타난다. 1975년(윤복자)조사에 따르면 주부들은 일차적으로 세탁기 구입을 원하였고(30%) 다음으로 냉장고 구입을 원하였다(7%). 그러

1) 국내에 도입된 재봉틀에 관한 광고는 1900.4.26일자 제국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 노동절약적 특성으로 주부의 요구가 높은 세탁기는 냉장고보다 늦게 개발되었고, 전기청소기와 식기세척기는 다른 어떤 기기보다 늦게 개발되었다. 제품의 개발 순위가 소비자의 노동절약적 요구 또는 필요도와는 무관했다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 효율보다 생산자의 효율이 우선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자본재 및 서비스의 가격 변화

재화 구매의 욕구는 우선적으로 재화 가격에 의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자료에 의하면 가정기기를 포함한 가정용기구의 물가지수는 1975년 79.0, 1978년 73.7, 1981년 95.9, 1985년 100.0, 1989년 101.5, 1993년 104.1으로 1978년 이후 감소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b, 1980, 1988, 1994). 가정기기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기기의 보급이 증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재화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경우 물가가 다소 올라도 물가 상승 이상으로 제품의 효용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구모델의 기능과 가격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확인해 보기는 어렵지만 재화의 기능 증가는 간접적으로 가격의 하락 효과를 초래하여 보급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재화가격의 하락은 실질소득의 증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실질소득이 오르면 가계는 특정 재화에 대해 총소득의 더 적은 비율로 같은 양과 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1975년과 1990년 사이 전도시에서의 가정용기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20% 증가하였지만 이 기간 중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실질소득은 약 350% 증가하였다.[2] 가정용기구의 가격보다 실질소득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재화가격의 하락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정기기의 보급은 기기 자체의 가격 뿐 아니라 가정기기에 대응하는 시장 서비스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가정기기의 보급이 확대된 1970년과 1993년 사이 가사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9.2에서 229.5로 약 2,400% 증가하였고 피복 및 신발 서비스의 물가지수는 1970년 7.3에서 1993년 252.5로 3,500% 상승하였다(통계청b, 1980, 1988, 1994). 반면 가구집기용품의 물가지수는 1970년 32.7에서 1993년 141.7로 400%, 가정용기구의 물가지수는 1975년 79.0에서 1993년 104.1로 130% 증가하였다. 1970년과 1993년 사이에 가사서비스와 피복 및 신발 서비스의 가격이 가구집기용품 특히 가정용기구의 가격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브라이언트(Bryant, 1986)가 말한 바와 같이 주부의 노동시간으로의 대체를 초래하여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는 가정기기 도입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가정고용인의 감소

가정고용인의 공급 감소는 가정기기에 의한 가정고용인의 대체를 유도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가정기기의 도입이 가정고용인에 대한 수요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1968년 가정고용인의 고용비율은 59%였다(김분옥 · 장명욱, 1968). 1970년 조사(용문숙)에서는 도시주부의 가정고용인 고용율은 41.5%였고, 1972년 서울주부 조사(이정우)에서 고용율은 46%였다. 대체로 1970년을 전후로 도시주부의 40% 정도가 가정고용인을 고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용 비율은 줄어들어서 1987년 도시주부 조사(이기영)에서는 가정부와 파출부를 합한 고용율이 22.7%로 감소하였다. 1989년 서울의 주부조사(이승미)에서는 14.3%가 가정부 및 파출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을 전후로 높았던 가정고용인 고용비율이 1980년대에는 20% 내외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 1985년 기준 실질소득은 1970년 18만 5천원 1990년은 72만 4천원이다(통계청, 도시가계연보에 의거 계산)

1970년 도시주부 조사에 의하면 가정고용인의 연령은 16세에서 25세가 66.0%, 46-55세가 10.5%, 26-35세가 8.6%, 36-45세가 8.0%로 16-25세가 가장 많았다(용문숙, 1970). 1960년대 말부터 도시에 대량 유입되었던 이들 연령계층의 여성 인력은 1970년대 초 내지 중반 경에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박세일, 1992).

가정고용인의 감소는 노동집약적 산업 특히 제조업에서의 흡수와 더불어 교육의 기회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세-19세의 제조업 여성근로자는 1970년 39.1%, 1975년 44.3%로 증가하였고(한국여성개발원b, 1991), 중학교 취학율은 1970년 46.5%에서 1975년 67.0% 1980년 92.6%로 증가하였다(교육부, 각 년도).

가정고용인의 수적인 감소와 더불어 이들의 임금수준 향상도 가정고용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가정고용인의 임금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여성 중졸이하자의 임금수준은 1970년 6,447원에서 1980년 69,995원으로 상승하였다[3](한국여성개발원b, 1991).

이처럼 가정고용인의 임금이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부 특히 중류층 주부들은 가정의 관리자이면서 노동자가 되었다. 조력자가 사라지고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증가한 때에 가정기기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아니라 문화적 이기로써 가사노동을 도전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정기기는 가정고용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Stigler, 1946), 국내에서 가정기기는 스롤(Thrall, 1982)의 주장처럼 가정고용인의 공급감소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소득수준의 향상

소득은 구매력을 나타내므로 가사노동의 기계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가정기기가 보급된 기간인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실질소득은(1985년 기준) 1970년 18만 5천원에서 1990년 72만 4천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통계청d, 각 년도). 실질소득 중 가정기기를 포함한 가구집기 가사용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75년 1.0%에서 1980년 2.7%, 1985년 3.5%, 1990년 5.4%로 계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75년 이후 냉장고의 보유율이 급증하고 1985년 이후 세탁기의 보유율이 급증한 것은 이러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출의 증가가 그 직접적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출의 증가뿐 아니라 생활표준(standard of living)의 상승도 가정기기의 보유를 확대시켜왔다. 생활표준이란 일반적으로 원하거나 추구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대중적 의미가 강하다(이기영, 1987).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의하면 1960년에는 라디오가 유일한 문화기기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70년에는 라디오 외에 TV, 재봉틀, 냉장고, 전축, 전화, 피아노 및 올갠이 조사되었다. 1980년에는 세탁기, 에어콘이 추가되었고, 1990년에는 오디오, VTR, 개인용 컴퓨터, 자가용 승용차가 추가 조사되었다. 조사품목이 증가하는 것은 그 시대에 소유하길 원하고 추구하는 생활표준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층간의 소득수준, 생활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정기기가 폭넓게 확산되어 온 것은 이러한 생활표준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기기의 도입이 소득수준, 생활표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해온 것은 베블렌(Veblen, 1934)이나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86)의 주장처럼 기술선택이 효율보다는 계층 또는 위세 욕구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여성취업의 증가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의 증가는 소득증가와 시간제약을 초래하여 가정기기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외숙 외, 1991).

국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 26.8%에서 1970년 38.5%, 1980년 40.6%, 1990년

3) 실질임금(1985=100)은 1970년 41,063원, 1980년 98,724원으로 240% 증가하였다.

47.0%로 1960년 이래 계속 증가해왔다(한국여성개발원a, 1986, 1994).

그러나 취업여성의 증가는 소득증가를 크게 유발하지 않는 저소득관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1966년의 경우를 보면 고소득 관련직종이라 볼 수 있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여성취업율은 전체 여성취업의 1.7%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저소득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농·축산·임·수·어업의 여성취업율은 57%, 생산직 13%, 판매직 11%, 서비스직은 16%로 높았다(한국여성개발원b, 1991). 이러한 현상은 1992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여성취업율은 9.8%, 제조 및 기능·단순직은 23.8%, 농·어업 숙련직 25.6%, 서비스 및 판매직 26.8%로 역시 저소득관련 직종에서 취업율이 높았다(한국여성개발원a, 1994).

가정기기의 취업에 대한 효과는 취업여성을 기혼여성에 제한시켜 볼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정기기의 생산이 확대된 1970년과 1980년 사이에는 43.1%에서 33.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a, 1986, 1994). 게다가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중졸이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1992년에도 전체 기혼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71.1%를 차지하였다. 반면 가정기기의 보유율이 높은 고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전문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6.5%에 지나지 않았다(한국여성개발원a, 1994). 여성취업이 저소득관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소득증대 효과로 가정기기를 구입하여 시간제약을 해결할 가능성이 적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기기 소유에 대한 상대적 빈곤은 임노동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취업주부는 가계의 곤궁함을 보충하기 위해 가정기기 대신 주부의 직접적 노동을 이용하므로 가정기기의 도입은 지연된다.

시간제약과 관련지어서 볼 때도 주부의 취업은 가정기기의 도입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학(1985), 이승미(1989)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상태는 가정기기 보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비취업주부의 가정기기 보유율이 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여성취업의 증가가 소득증가와 시간제약 초래를 통해 가정기기의 도입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산업화 이후 도입된 주요 가정기기의 종류 및 보급 추이, 도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시대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는 전자공업이 태동하는 시기로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주요 가정기기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재봉틀과 다리미의 보급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 시기에 보급이 증가하였다. 가정기기의 보급은 가정고용인의 고용율이 높은 중상류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전반으로 소득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생활표준도 높지 않았다.

1970년대는 전기시설이 확충되고 전기밥솥, 전기밥통과 같은 소형 전기제품과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정기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전기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정기기가 개발되었다. 여성의 취업율은 증가하였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가정고용인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가정고용인의 문제는 중요한 가정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동안 가계소득은 계속 증가하였고 가정용 기구의 가격은 하락과 상승의 변동을 보였다. 가정고용인의 감소와 가계소득의 증가가 이 시기의 가정기기의 보급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는 상수도 보급이 확충되고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냉장고, 세탁기 등의 주요 가정기기의 보급이 50%를 넘어 확산되었다. 식기세척기, 가스보일러와 같은 새로운 가정기기도 개발되었다. 소득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가정고용인은 계속 감소하였고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높은 확산율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몇몇 주요 가정기기의 보급율이 50%를 넘어 일반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가정

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주요 가정기기를 소유하였다. 소득은 계속 증가하였고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40%를 넘었다. 이 시기에 가정기기 도입은 가계소득의 계속적인 증가와 여성취업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로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정기기 도입 과정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주부의 노동 효율성 증가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가정기기의 보급은 무엇보다도 전자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해 왔고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절약적 특성이 큰 가정기기는 다른 기기보다 비교적 늦게 개발되었다. 가정기기의 개발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효율보다는 기업의 조건과 필요가 우선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취업 증가와 더불어 가정기기 도입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성취업이 저소득관련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는 적었다. 게다가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시간제약 해결을 위해 가정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가사노동 효율성이 많이 요구되는 저소득층 취업주부에게 가정기기의 도입은 오히려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소득의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 생활표준의 증가가 가정기기의 도입을 촉진시켜왔다. 이것은 가정기기의 도입이 일면 가정고용인의 고용비율이 높고 과시욕구가 큰 고소득계층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정기기는 주부의 가사노동 효율보다는 소유의 과시 수단에서 먼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사서비스 등의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가정고용인의 공급감소도 가정기기의 보급을 확대시켜온 요인이었다. 가정기기는 특히 중상류층의 가정고용인을 대신하여 주부 일인에게 집중된 가사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케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정기기는 주부 일인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경향신문. 1947.3.2.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한국민속대관』.
3) 교육부.『교육통계연보』. 1970, 1975, 1980, 1985, 1990.
4) 금성사 홍보실. 1994. "신한국형 초강력 식기세척 건조기 본격판매".『보도자료』.
5) 금성사. 1993.『금성사 35년사』.
6) 김금숙. 1991. "신문에 나타난 우리나라 가정전기기기의 변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분옥·장명욱. 1968. "우리나라 주부의 부엌 관리율".『대한가정학회지』 제6권 : 959-971.
8) 김외숙·이기영·최은숙. 1991.『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9) 김의원. 1982.『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10) 문화공보부. 1988.『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식생활용구편』.
11) 박세일. 1982.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분석".『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59-87.
12) 상공자원부. 1993.『상공자원백서』.
13) 용문숙. 1970. "한국가정의 부엌관리실태에 대한 위생학적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윤복자. 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2호 : 151-169.
15) 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이승미. 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용학. 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이정우. 1972.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 2호 : 63-76.
19) 전국경제인연합회.1985.『한국경제연감』.

20) 전병기. 1982. 한국과학사. 이우출판.
21) 제국신문. 1900.4.26.
22) 조선전업주식회사. 1958. 『전력연감』.
23) 중앙일보. 1995.2.15.
24) 통계청a.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1.
25) 통계청b. 『물가연보』. 1980, 1988, 1994.
26) 통계청c. 『경제활동인구연보』. 1977, 1986, 1994.
27) 통계청d. 『도시가계연보』. 1970, 1975, 1980, 1985, 1990.
28) 통계청e.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29) 통계청f.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2.
30) 통계청g. 『한국의 사회지표』. 1991.
31)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원로과학 기술자문단. 1987. 『우리나라 과학기술발달사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32) 한국여성개발원a.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1994.
33) 한국여성개발원b. 『여성백서』. 1991.
34)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연구실. 『가전기기 보급율 조사연구』. 1979, 1986, 1990, 1992, 1994.
35) 한국전자공업진흥회. 1981. 『전자공업20년사』.
36) Baudrillard, Jean. 1986. *La Soc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 Éditions Denoël. (장 보드리야르. 1992.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37) Bryant, W.Keith. 1986. "Technical Change and the Family; An Initial Foray". pp.117-126 in *Human Resources Research 1887-1987 Proceedings*. R.E.Deacon & W.E. Huffman(eds). Ames, Iowa College of Home Ecomonics. Iowa State Univ.
38) Cowan, R. Schwartz. 1983. *More Work for Mother*: The Ironies of Household Technology from the Open Hearth to the Microwave. New York : Basic Books.
39) Day, Tanis. 1992. "Capital-Labor Substitution in the Home", *Technology and Culture* 33(Apr.): 302-327.
40) Fisher, Wolfgang. 1972. *Sozial-ökonomische Aspekte der Entwicklung der provaten Hauswirtschaft*. Bonn.
41) Giedion, Siegfried. 1948. *Mechanization Takes Comman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42) Hartmann, Heidi Irmgard. 1974. *Capitalism and Women's Work in the Home, 1900-1930*,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43) Klemm, F. 1992. 『기술의 역사』. 이필렬 역. 미래사.
44) Long, Clarence D. 1958. *The Labor Force Under Changing Income and Employment*.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45) Mansfield, E. 1968. *The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New York.
46) Stigler, George J. 1946. " Domestic Servants of the United States, 1900-1940", *Occasional Paper* 24.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47) Thrall, Charles A 1982. "The Conservative Use of Modern Household Technology".*Technology and Culture* 23(2) : 174-194.
48) Veblen, Thorstein. 1934. *The Theory of th Leisure Class*. Modern Library Inc.
49) Wilson, G.B.L. 1978. "Domestic Appliances". pp. 1126-1149 in *A History of Technology* : The Twentieth Century c.1900 to c.1950. edited by Trevor I. W Oxford : Clarendon Press.